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0. 11(화) 오전 9시부터

배포

2016. 10. 10(월)

책임자

동향분석실
임준환 실장(3775-9028)

작성자

조용운 연구위원(3775-9018)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총7매

제목 : 저금리 기조 심화로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0월 11일(화) 오전 7시 30분부터 조선호텔(소공동)에서 제42회 보험CEO 및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함. 동 조찬회에서 보험연구원 임준환 연구조정실장은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표함.

2017년 보험산업 보험료 수익 2.2% 성장에 그칠 전망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보험료 수익이 2016년 3.2% 성장에 그치고 2017년 들어서는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어 2.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생명보험은 2016년 2.7%, 손해보험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7년에는 두 산업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어 각각 1.7%,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및 유병자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2016년(7.7%)에 이어 2017년(4.7%)에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견인력은 약화될 것으로 봄. 동시에 저축성보험은 2016년(-2.0%)에 이어 2017년(-1.2%)에도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인 성장세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부문과 일반손해보험은 2016년(각각 11.8%, 3.0%)에 이어 2017년(각각 10.0%, 4.2%)에도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자동차보험은 2016년(11.0%)

에 이어 2017년(4.8%)에도 손해보험의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연금부문과 장기손해보험 저축성 부문이 2016년(각각 -1.0%, -19.9%)에 이어 2017년(각각 -1.1%, -22.5%)에도 역성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손해보험의 전체적인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저금리 기조 심화로 저축성보험 역성장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금리에 민감한 저축성보험 및 연금부문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저금리 기조의 심화를 들고 있음. 저금리 기조 심화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보험회사 수익성 제고를 어렵게 하여 상품판매 유인을 떨어뜨리기 때문임.

반면에, 보장성보험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음. 보장성보험은 금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저축성보험보다 수익성이 큼.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유리한 보장성보험의 판매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임.

보험회사 장기적 가치 제고 추구해야

저금리 기조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성장세 둔화 및 거대자본 확충 필요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환경하에서 동 조찬회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몇몇 방안을 정리하고 있음.

첫째, 2020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를 과거 판매 시점의 이율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시점의 무위험 수익률(예; 국채수익률)을 기초로 평가하도록 하여 현재시점의 보험회사

가치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단기실적 중심의 경영자 성과평가체계를 장기적 보유계약가치와 연동된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둘째, IFRS4 2단계 도입으로 상당한 규모의 보험부채 추가 적립이 요구될 경우 보험회사는 가용자본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지급여력비율($\text{=가용자본} \div \text{요구자본}$)이 낮아져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용자본의 확충보다는 먼저 요구자본 경감을 위한 자산운용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그 대안 중의 하나로 보험부채 특성을 고려한 투자전략(LDI)의 강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셋째, 단기적으로는 보험회사가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넷째, 장기적으로는 계약자 불만을 줄이고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의 판매 확대를 통한 수수료 수입원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다섯째, 중고자동차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을 보상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보증연장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며, 여섯째, 한방비급여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지급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마지막으로, 최근 성장하고 있는 간편심사 유병자보험의 보험금 지급관리를 위해서 건강생활서비스의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첨부: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및 2017년 보험산업 중목별 전망 각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 **(개관)**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보험료 수입이 2016년 3.2% 성장에 그치고 2017년 들어서는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어 2.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생명보험은 2016년 2.7%, 손해보험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7년에는 두 산업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어 각각 1.7%,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및 유병자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2016년(7.7%)에 이어 2017년(4.7%)에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견인력은 약화될 것으로 봄. 동시에 저축성보험은 2016년(-2.0%)에 이어 2017년(-1.2%)에도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인 성장세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부문과 일반손해보험은 2016년(각각 11.8%, 3.0%)에 이어 2017년(각각 10.0%, 4.2%)에도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자동차보험은 2016년(11.0%)에 이어 2017년(4.8%)에도 손해보험의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연금부문과 장기손해보험 저축성 부문이 2016년(각각 -1.0%, -19.9%)에 이어 2017년(각각 -1.1%, -22.5%)에도 역성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손해보험의 전체적인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금리에 민감한 저축성보험 및 연금부문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저금리 기조의 심화를 들고 있음. 저금리 기조 심화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보험회사 수익성 제고를 어렵게 하여 상품판매 유인을 떨어뜨리기 때문임.

반면에, 보장성보험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음. 보장성보험은 금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저축성보험보다 수익성이 큼.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유리한 보장성보험의 판매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임.

□ **(생명보험)** 보험연구원은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보장성보험 성장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역성장으로 2016년 성장률에 비해 1.0%p 하락한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2017년 보장성보험(종신·CI·암·질병·상해 등)은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과 중저가형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신규판매 확대가 예상되나 보험료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와 계속된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성장률은 2016년에 비해 3.0%p 하락한 4.7%가 될 것으로 전망함.

- 2016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연금 선지급형 신종신보험과 유병자보험 등의 판매 호조로 인해 7.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o 2017년 저축성보험(생존·생사혼합·변액유니버설·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저금리 지속,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2%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함.

- 2016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저금리 지속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 부담이 확대되면서 특히 연금보험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년대비 2.0%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함.

- o 2017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노후소득 관심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등의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심화, 경기침체 지속 및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신규수요 위축 등으로 5.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2016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대기업의 높은 가입률로 인해 신규 수요 확대 여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11.6% 성장을 전망함.

□ **(손해보험)** 보험연구원은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장기보장성보험(상해·질병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저금리 지속에 따른 연금부문과 장기저축성보험 등의 부진에 영향을 받아 성장세가 2016년 대비 0.9%p 감소한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o 2017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6년 2.6%에 비해 소폭(0.3%p) 상승한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대표적 보장성보험인 장기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예정이율 인하와 같은 신규수요 확대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관심이 여전히 크고 2015년 이후의 보험료 현실화의 영향을 받아 10%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봄.

-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 수요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저금리 지속에 따른 저축 여력 개선의 어려움, 저금리 리스크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의 판매 부담 등의 영향이 커 감소세를 지속하여 전년대비 2.6%p 감소한 -22.5%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함.

- o 2017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여력 약화로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른 고객니즈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저성장으로 성장여력이 약화된 데다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과 금융권 간 경쟁심화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봄.
- o 2017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은퇴 시장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등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지속 및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한 신규가입 수요 부족, 은행과 증권회사의 실적배당형 DC형 시장 확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 전략의 영향을 받아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함.
- o 2017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등의 보험료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차량대수 증가와 가입금액 고액화, 2016년의 요율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o 2017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저성장 및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017년 보험산업 종목별 전망

(단위 : 억 원, %)

종목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 보험	보장성 ¹⁾	346,027	5.1	377,794	9.2	406,878	7.7	426,094	4.7
	저축성 ²⁾	633,355	-5.0	649,618	2.6	636,765	-2.0	629,303	-1.2
	퇴직연금	118,221	45.4	136,990	15.9	152,929	11.6	161,806	5.8
	기타 ³⁾	8,150	-2.5	7,735	-5.1	7,707	-0.4	7,748	0.5
	합 계	1,105,753	1.9	1,172,137	6.0	1,204,279	2.7	1,224,952	1.7
손해 보험	장기손보	444,037	6.1	465,801	4.9	478,110	2.6	491,749	2.9
	상해·질병	213,233	14.3	243,162	14.0	271,856	11.8	299,041	10.0
	저축성	117,617	-2.4	104,650	-11.0	83,825	-19.9	64,964	-22.5
	기타 ⁴⁾	113,186	1.5	117,988	4.2	122,430	3.8	127,744	4.3
	연금부문	104,809	34.2	103,879	-0.9	102,873	-1.0	101,697	-1.1
	개인연금	41,090	-3.2	40,211	-2.1	39,206	-2.5	38,030	-3.0
	퇴직연금	63,719	78.8	63,668	-0.1	63,668	0.0	63,668	0.0
	자동차	135,484	5.2	149,914	10.7	166,405	11.0	174,392	4.8
	일반손보	81,424	-0.3	82,879	1.8	85,396	3.0	89,000	4.2
	화재	3,106	-3.6	3,041	-2.1	3,011	-1.0	3,011	0.0
	해상	7,343	-2.2	7,091	-3.4	6,049	-14.7	4,990	-17.5
	보증	15,152	-0.6	15,816	4.4	15,705	-0.7	15,517	-1.2
	특종 ⁵⁾	55,823	0.3	56,931	2.0	60,631	6.5	65,482	8.0
	합 계	765,754	8.3	802,473	4.8	832,784	3.8	856,838	2.9
전 체		1,871,507	4.4	1,974,609	5.5	2,037,064	3.2	2,081,790	2.2

주: 1) 보장성에는 종신보험, 질병보험, 변액종신 등이 포함됨.

2) 저축성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이 포함됨.

3)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이 포함됨.

4) 기타에는 재물,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이 포함됨.

6)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